

무안 국제 공항

아시아나항공, 적자 누적에 내달 베이징 정기 노선 폐지 정기 국제선 없이 日 등 부정기 운항...전세기 공항 전략 이용객도 '뚝'...호남고속철 경유 등 활성화 대책 시급

무안국제공항의 마지막 남은 정기 국제선인 베이징 노선이 다음달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이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무안~베이징 노선을 폐지하고 대신 무안~제주 노선의 국내선으로 돌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의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은 사실상 무너졌다. 대책은 지역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뿐이라며 정부가 서둘러 노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역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8일 전남도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적자가 누적되는 무안~베이징 노선을 다음달 말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노선은 동방항공의 무안~상하이 노선과 함께 무안공항에서 돌리던 정기 국제선이었다.

사드(THAAD) 배치 영향 등으로 지난 5월10일 상하이 노선 운항이 중단된 데 이어 베이징 노선 폐지가 유력시된다. 아시아나는 적자폭이 지난해 12억원에서 올해는 2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사드 배치 여파 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중국 정기 노선이 사라지면 무안공항은 전세기 공항으로 전락하게 된다. 무안공항에서는 일본 기타큐슈·나고야·오사카, 중국 상하이, 마카오, 베트남 다낭, 캄보디아 시엠펙, 필리핀 칼리보 등 8개 노선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한다.

국내선도 티웨이항공의 기존 제주행 노선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설할 예정인 제주

행 노선 등 하루 2편이 전부다. 무안공항 이용객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8만8478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22만5523명)보다 4만45명(17.5%)이 줄었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작년 대비 48.5% 감소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방안은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해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무안공항 경유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지만, 노선 확정은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기획재정부의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변수로 등장하면서다.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한 공론화 작업도 더 필요해졌다.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는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2020년까지 광주공항의 제주·김포노선을 모두 옮기면 무안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18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결정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기 국제선이 폐지된 것은 아쉽지만 중국 의존을 벗고 동남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대응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UN총회 다녀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환승객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 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 여부 이달말께 결정

여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중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수 화양지구와 광양 복합업무단지 가운데 개발이 어려운 산림면적 등 일부를 빼고 경도(212만7000㎡)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심의를 앞서 지난 1일 민간평가단은 현지 실사를 했다. 실사 결과, 개발사업자 지정 가능성, 부지확보 용이성, 관광수요 확보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주민의견 등 평가지표의 적합 기준인 7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애초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심의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심의에서는 개발 사업 시행자의 능력, 개발 가능성, 효과, 주민 의견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투자자는 세금·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도로 진입하는 연륙교 건설 과정에서 예상 사업비(620억원)의 상당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편입이 확정되면 투자자인 미래에셋의 주도로 실제 개발구상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된다. 미래에셋의 계획안은

접수해 전남도가 산자부에 요청해 승인받는 형식이다.

반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지적·보완 사항 이행 등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자부 분위기를 미뤄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안건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1월 전남도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소유한 여수 경도 리조트, 골프장 등 기존 시설과 부지를 3433억원에 사들이고 추가 투자액을 합쳐 모두 1조원 이상을 들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를 조성하겠다고 전남도 등과 협약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현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관측이 나온 권한대행 교체는 새 소장 임명, 잔여 임기 등 여러 측면을 볼 때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18일 오후 김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간담회를 열고 재판관 전원인 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재판관도 모두 장기간 소장 공석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교체되면 현재의 역할과 기능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치매, 상담부터 요양서비스까지 맞춤형 지원

광주·전남 '치매안심센터' 27곳 연말 개설

올해 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광주 동구벤처빌딩 등 광주 5곳과 전남 22개 시·군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지역의 치매안심센터는 늦어도 올 말에는 각 지역에서 문을 열게 된다.

현재 전국 공립병원 34곳에 설치된 치매 병동은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확충, 79개 요양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이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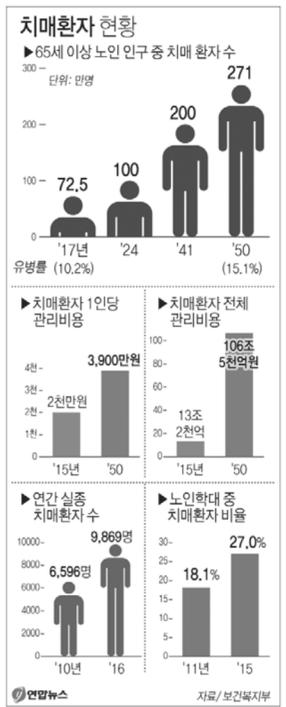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되고 치매 진단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경증치매 환자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이 확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2030년 치매 인구가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며 "그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러 한다"고 말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대표적인 공약이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 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대된다.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병동(병상 1898개)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12월 이후 79개 병원, 3천700개 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광양항 배후단지, 고압→대용량전력 상향

광양항 배후단지 전력시설이 고압전력(22.9kV)에서 대용량전력(154kV)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압전력(22.9kV)을 공급하는 광양항 배후단지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550억원을 투입해 대용량전력(154kV) 시설로 상향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보통 초고압(765kV 등) 상태로 송전되다가 변전소에서 1, 2차 변전을 통해 154kV나 22.9kV로 강압돼 공장 및 대형건물 등지에 공급된다. 일반 가정은 전신주 변압기에서 220V로 강압된 전기를 공급받는다. 아파트 등 대형건물에는 22.9kV 시설이, 기아차 등 대형공장에는 154kV 시설이 설치돼 전력을 공급받는다.

이 사업은 아파트 등에 공급하던 시설을 기아차 등 대형공장에 공급하는 대용량전력 시설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항만 배후단지에는 22.9kV 전기가 공급돼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제

조업체 입주자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A사는 8만8000kW(시간당 최대부하)의 전력, 원자재 처리 및 가공 기업인 B사는 1만6000kW, 배터리부품 개발업체인 C사는 7만kW의 전력이 필요한데 광양항 배후단지는 이를 공급할 수 없어 입주하지 못했다. 그동안 광양항 배후단지에 제조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다.

광양항이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기업과 함께 제조업 등 다양한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용량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해수부는 보고 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양항에 대한 154kV 전력 공급을 위한 설계 용역비 5억7000만원을 반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한마음 공인중개사

-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집, 삼거리 코너(뒷집 직입중), 매매 4억3천만원
-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 ▶무등산 총장사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앞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급매, 매매가 7억(조정가)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정부공계),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010-5236-745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케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